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력 집중

영암군, 신규 채용 4대 보험 30% 보조 청년 근속장려금 등 근로자 취업 지원

영암군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암군은 11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산업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회 추경에 군비 6억원을 편성, 중소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3개월 분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은 주 52시간 제도 본격 시행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오는 12월 31일)와 동시에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유예분 일괄 상환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데 따른 조치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이후 조선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더딘 회복세와 절강 원자재 상승 및 코로나 19 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을 감안한 시책이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67개사) 등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올해 지역민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 분 중 최초 3개월 분 일부를 지원, 기업의 인건비 부

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 청년층 지역 유입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5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당초 지원 기간을 3년에서 최장 6년까지 연장, 157개 기업에 이차보전금 6억원을 지원했다.

관내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근로자와 조선업 근로자들의 취업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유예 분 특별 경영자금 신설을 지난 4월 울산시, 울산 동구 등과 공동 건의한 바 있고 올해 말 지

정 만료 예정이었던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 연장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전남도와 함께 대응해 2023년 5월 말까지 2년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군은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공동복지기금 조성도 전남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군은 조선산업 다각화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중소기업 선박 공동 건조 기반 구축 120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 115억원,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 구축 203억원 등을 지원하는 등 기업 물류비 절감과 국산화를 제고로 생산기업 매출 증가 및 연관기업 유치·집적화를 통한 밸류체인을 조성했다.



영암군이 조선산업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3개월 분의 30%를 지원한다. 사진은 대불산단 전경. <영암군 제공>

이와 함께 전남도,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 기술 공유플랫폼 사업 140억원, 친환경 선박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252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4억원 등 올해 공모사업으로 416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조선산업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활황기에 이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소 조선산업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암=이봉영기자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무안군은 11일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유통량이 증가하면서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환전 내역을 사전 분석한 뒤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업 등) 여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무안=최옥수기자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국회의원에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무안군 제공>

영암, 적수 피해 세대 수도요금 감면

영암군은 11일 "최근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적수 피해를 본 수도요금 납부 2천500세대의 9월 사용분(1개월)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최근 3개 면(군서·서호·학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적수는 상수도관 내 쌓여 있던 침전물이 추석 전·후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것이다.

현재 군은 해당 지역 내 적수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 세척 작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군서·학산지역 상수도 보급지역 노후관 교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 추진 중이다.

적수 발생으로 인한 요금 감면 대상은 군서면 전역, 서호면(금강·태백리 제외), 학산면 용산리 거주 2천500세대다. 별도 신청없이 10월 분 고지서에서 일정 금액 차감돼 발송된다. /영암=이봉영기자

무안군,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김산 군수, 서삼석 의원 면담...현안 지원·협조 요청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 서삼석 국회의원(무안·영암·신안)을 면담하고 10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군수는 앞으로 진행될 상임위원회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2022년 국고 지원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중소기업진흥원 일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무안을 하수처리장 증설 ▲복길, 원순현, 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에 국비 요청액 46억원이다.

2021년 특교세 지원 건의 사업은 ▲옛 국지도 49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삼향읍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 ▲해제면 양매지구 농업용수 용수로 설치 ▲망운 송현리 송림숲 테마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중 26억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2022년 어촌뉴딜300 ▲무안군 갯벌 조립사업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오는 12월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국회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10월부터 11월까지의 국비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최종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서삼석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무안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국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최옥수기자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

농림부 평가 결과 내년 국비 21억 확보

무안군은 11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돼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6개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무안은 평가 결과 19위로 지난해 대비 8단계 상승했다.

무안군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3개 사업에 총 2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올해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일로분소 리모델링과 해제분소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운남분소를 이전하고 2023년에는 정계분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새롭게 단장하는 분소에는 농기계 사용

법이 익숙지 않은 농민들이 임대할 농기계를 연습하고 작동법을 익힐 수 있도록 영상학습실과 농기계 실습장이 조성된다.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가 완료되면 농기계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 농기계 이용 시 주중 1일의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있다"며 "우수 군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농번기를 맞아 임대사업소를 9-11월엔 오전 8시부터 운영하고 10월에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무안=최옥수기자

영암군, 경영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

긴급대책비 등 29억...골목상권 활력 기대

영암군은 1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대책비(2차), 상반기 카드 수수료, 특수고용(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정지원(2차) 등 제3차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제3회 추경에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 감염 재확산 등으로 매출 감소와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 추경으로 지원 사업을 확정할 바 있다.

특히 2차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책비는 1차 때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 업종 및 특별피해 업종으로 지난해 연매출 기준금액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2차 지원 대책 선호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 올해 상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주소·사업장 등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영암=이봉영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과 PC 모두를 위한 **듀얼 USB 메모리**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DVD 변환전문업체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